

일정부 '정신대보상' 혼선

1992. 1. 29

미야자와 '해결되지 않은 양국 현안' 거듭 강조

관방장관 '65년 협정때 종결' 종전 입장 되풀이

【도쿄=로이터 교도 연합】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은 20일 일본은 2차대전중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간 수만명의 인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 미야자와 수상은 이날 열린 고 위당정회의에서 한국은 지난 65년에 체결한 한-일국교정상화 조

약에 따라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한국정부도 그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 보상요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"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"고 말했다고 일본의 <교도통신>이 전했다.

미야자와 수상은 정신대 문제가 한-일 양국간의 현안임을 거듭 지적하면서 "이 문제는 한국인에게 참을 수 없는 것"이라고 말했다.

그러나 이에 앞서 가토 기이치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보상 문제는 양국간에 전면적인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난 65년 당시

의 협정에 따라 이미 종결됐다면 보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.

大邱에 「從軍위안소」 있었다

"17~20세 처녀 20여명 수용" 1992. 01. 19. 조선

【大邱=朴園秀기자】 일제 가나아리 연교교생까지 정신대에 끌려간 사실이 전국 곳곳에서 일고있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동구 동984 대구동부경찰서 동문파출소 동쪽쪽에 50평

크기의 종군위안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. 이 일대에서는 당시 경북도청과 동문파출소 경에 근접한 동문파출소(73) 대구시동부경찰서(1039)의 4가 18일 동문파출소 써 붙였으며, 국내의 위안소 존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동문파출소는 당시 경북도청과 동문파출소 경에 근접한 동문파출소(73) 대구시동부경찰서(1039)의 4가 18일 동문파출소 써 붙였으며, 국내의 위안소 존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도 종군위안소

북도청 직원 증언

경구 기자 태평양전쟁 방면에서 국내로 후퇴 이 주둔부대 주변에 종군 마련해두었다는 증언 국내 종군위안소 존재 현해 주목받고 있다. 경북도청 직원으로 근무

수(73·대구시 동구 9-4)씨는 18일 "44년 1도에서 후퇴해 대구 1리오 3만명 규모의 동 1사동 984(당 성군 동촌면 김사리) 기의 2층 목조건물에 부 20여명을 수용해 을 출입시켰다"고

1. 19

이 일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이 일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이 일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이 일대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日挺身隊 사죄의 의미

【東京=文藝春秋(파워)】 일본정부가 위안소나마 전정위안부징역에 간행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 인했다. 다케카와 가토(加藤)는 일본 관방장관 겸 정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정신대관계 사죄담화문 전문이다. 1. 관계자들의 발표를 듣고 조선반도 출신의 이들과 종군위안부 여관들이 체한 고를 생 2. 이번 종군위안부징역에 종군위안부인 관 3. 이들과 종군위안부 징역에 종군위안부인 관 4. 이번 종군위안부 징역에 종군위안부인 관 5. 이번 종군위안부 징역에 종군위안부인 관